

## 물 좋은 호텔, 우리가 책임진다!

어느 시인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꿈쩍없이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직장인에게 신록의 계절 5월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진다. 기쁨은 가방 하나 달랑 짊어지고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5월. 물론 이런 여행지에 아름다운 숙박지까지 있다면 더없이 안성맞춤일 터.

국내 최고의 아름다운 숙박지만을 찾아서 알려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국내 최대 FOOD포털 사이트 메뉴판닷컴에서 호텔, 펜션 등 숙박 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호텔사업부 '호텔365팀' 이 바로 그들이다.

2004년 12월부터 호텔사업부로 정식 분리된 호텔365팀. 메뉴판닷컴이 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책임진다면, 이들은 국내 여행정보와 숙박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던가. 다른 사람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활기차다.

"저희의 주된 업무가 여행지와 숙박시설을 발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

이 외근을 자주 나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직장동료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강민성 팀장이 말하는 또 다른 팀워크의 결정적 단서는 바로 비디오 게임. 마침 팀의 남자사원이 4명이라 2:2 축구게임을 자주 즐긴다. 팀의 홍일점인 김윤희 씨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주로 그들의 A급매치(?)를 관전만 하는 편이라고.

전국의 좋은 호텔과 펜션 등을 직접 찾아다니기 때문에 호텔365팀의 주된 업무는 주로 밖에서 이루어진다.

"한번은 광고계약을 하러 지방의 한 호텔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동행한 동료와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데 자꾸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길만 찾은 적도 있어요."

앞으로 메뉴판닷컴 내에서는 최고의 부서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숙박업 소개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는 호텔365팀. 이들에게 '여행'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다고 한다. 호텔365팀이 말하는 여행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여행은 일상의 짜든 때를 맘껏 뽐아 주는 세력이다. 좋은 여행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조영길 사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 애인과 같다고 하면 맞으려나?(장일동 사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 인생은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여행은 그 중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강민성 팀장)

되풀이되는 날들과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활력소, 건전한 일탈. (김윤희 사원)

호텔365팀에 근무하지만 어떤 땐 무작정 차를 몰고 강이나 바다로 달리고파. 거기에 소주 한잔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지? 아우~ (김민수 사원)

도

시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는 자동차의 물결이다. 안에 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단지 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들만이 도시를 메운다. 하지만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닥스테크 e-솔루션 사업부의 강재민 과장은 이 회색 도시 속에서 자그마한 일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취미는 다름 아닌 산악자전거 타기. 주말이 되면 자전거와 함께 산과 계곡을 누비는 것이 그의 취미니 일탈이라고 치면 꽤 유쾌하고 도전적이다.

강재민 과장이 본격적으로 산악자전거를 시작한 것은 98년. 가족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가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고 있을 때 그의 옆으로 유유히 사라지던 것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산악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모으고 거의 한 달간 서울에 있는 자전거숍을 다 돌아다녔죠. 뭘가에 훌린 듯한 기분이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운명에 끌리듯 산악자전거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 같아요.”

그렇게 그는 첫번째 애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산 다음 날부터 서울에 있는 산을 모조리 올랐단다. 그렇게 약골이던 청년이, 그 추운 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덕분이었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바이크 인생에 더욱 본격적으로 접어

들었다. 사람들과 강원도에 있는 산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의 아기자기한 산과는 또 다른 매력에 있는 거대한 산들을 말이다. 1천 미터가 넘는 산들도 그가 밟는 페달 앞에서는 아름다운 산악 코스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까지 10번 정도 대회에 참가했고, 2001년에는 전국 규모의 산악자전거대회 초급부문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실력이 수준급이다. 이만 하면 그에게 산악자전거 마니아란 칭호를 붙이기에 충분하다.

“흔히들 ‘자전거를 타면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은 돌고 도는 것이고, ‘희망’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는 한은 넘어 질 염려가 없거든요. 대회를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의 목표는 외국의 장엄한 산악코스를 달려보는 것이다.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국내의 산악코스도 물론 좋지만, 방대한 스케일의 악산들이 그의 도전의식을

을 자극한다고. 이 말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그의 모습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캐나다 로키산을 오를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 닥스테크 강재민 과장

자연을 벗 삼아, 페달을 다리 삼아